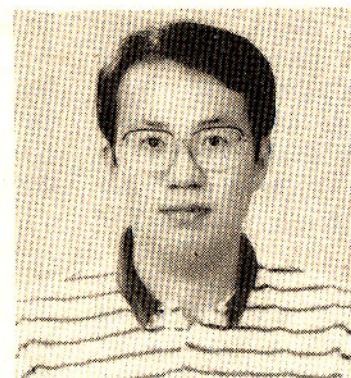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첫번째 환영객: 영어문제

엊그제 도착하신 분들은 이 러한 人爲的 想像을 할 필요도 없이 구체적 記憶으로 생생하 실 것이고, 도착하신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엊그제 같은 그 날, 그렇지만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바로 그날의 아련한 기억을 잔잔히 더듬어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希望과 걱정, 野望과 不安에 차서 도착한 위대한 보통인간을 맞으려 나온 여러 환영객들의 面目을 한 번 살펴보자. 구름처럼 雲集한 不知其數 舉族의 환영객 중에는 친척 친구 선배 후배 부동산 브로커 이민 브로커 목사님들이 눈에 띤다. 그런데, 이 환영객들 중 우리 위대한 보통인간과 제일 처음遭遇하여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도착자의 애인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다. 막 도착한 이 한국인을 제일 처음 만나서 카나다의 본때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맹랑한 환영객은 다름 아닌 '영어'라는 양반이다.

우리의 위대한 보통인간은

카나다에 도착하는 순간 '희망'이라는 환영객이 쌍수를 펼치고 다가와서 '현실'이라는 이름이 찍힌 명함을 건내주면서 예의바르게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지만, 이 '희망'이라는 양반은 워낙 꾸물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되어놓아서 공항영접을 절대로 나오시지를 않는다. 특히, '安心'이나 '平安' 이런 양반들은 꽈 좀 일찍 만나뵙고 될 수 있으면 같이 同業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양반들이지만 이 양반들은 원寇 꾸물꾸물 대는 그런 양반들이 되어놓아,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직접 인사나누기가 지극히 힘든 그런 양반들이다. 만나고 싶은 이런 양반들의 그

림자구경은 물론 냄새도 제대로 맡아보기도 전에 도착자의 頰面을 直擊 強打하는 무례하고도 맹랑한 불쾌하기 짙이 없는 환영객이 바로 이 '영어문제'라는 양반이다. 상대가 뭐라고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나오지 않고... 바로 그것이 영어문제이다. '아빠! 뭐래?' '여보! 뭐라고 해요?'... 나하나 믿고 이역만리를 따라온 귀여운 자식들과 연약한 아내가 이 알량한 家長에다 대고 계속 물어도 '시끄러! 난들 아냐?'라고 화를 벌컥 낼 수 밖에 다른 별재주가 없는 바로 그런 난처한 문제 말이다.

자! 우리 이 판국에 체면다 걸어 치우고 마음 푹 털어놓고 혁대풀고 양말벗고 까놓고 이야기하자. 영어는 참 어렵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韓半島의 分斷을 영구 고착시키고 있는 美軍의 한반도 駐屯에 抗議한다는 주체적 의미에서 영어 제대로 배우기를 拒否한 뼈대있는 집안의 자손이 많아서 그런지, 좌우지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영어회화학원, 입사

시험, AFKN 듣기 등... 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없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는데, 이 영어는 여전히 어렵다. 필자처럼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 사람은, 위에서 말한 그런 시간 투자외에도 거기다가 외교관이랍시고, 외무부에 들어갈 때나 들어가서 특수 集中 교육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서 박사학위를 하고, 심지어는 카나다 대학에서 교편을 수년이나 잡은 바 있어도, 영어는 여전히 어렵다. 한국서 요사이는 국민학교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아해들도 영재교육이니 무어니 하면서 영어과외를 6세때부터 시작하고, 심지어는 놀때에도, '영어로 놀자'라는 비데오를 보면서 '원투쓰리'와 '커몬 베이비'를 놋하면서 영악하게 놀아대지만, 우리 나이 지긋한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영어가 어렵다. '하니' '하니'하면서 양색씨나 洋郎君과 수십년을 偕老하신 분들 이야기인데, 그분들도 영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배워도 늘지도 않는 그런 못된 언어인 영어에 대해서 포기한 지 벌써 오래다. 알베르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데 필자가 못알아 듣는 질문을 늘어놓으면 별 이유 없이 화를 벌컥내고 넘어가는 수법을 써서 몇년간을 겨우겨우 넘겼다. 거기에 비하면, 인도사람들과 홍콩사람들은 발음이 듣기 싫어서 그렇지 단어의 나열이나 표현이 아주 세련되고, 글을 써놓으면 原般 뺨을

치게 성숙한 修辭學을 구사한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메타피지컬한 영역에 속한 그러한 영어의 표현에 체질적으로 아주 알미울 정도로 강하다. (정말 말안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은 그것이 또 큰 잘난체거리라서 유난히 잘난체들을 해대서 눈꼴이 시렵기까지 하다.)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이야 어떻던 간에) 자기내들이 미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내를 영어잘하는 것은 不問可知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독 필자가 속해있는 소수민족 그룹, 바로, '우리나라사람'들이 영어가 좀 짧다. 아니, 정확하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좀 짧은게 아니라 짧아도 많이 짧다. 극단적인 예로, 수십년 영어권에 살아도, 三人稱 單數의 동사 마지막에 "s"를 부치는 간단한 컨쥬게이션을 영원히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필자자신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LA흑인 폭동이나 필라델피아의 한흑갈 등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어문제에 어느 정도 그 遺因之一을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거기다가 일본인처럼 친절이 몸에 베어있지도 않고 말이

〈다음호에 계속〉

필자 김영수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